

#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2017 / 11 / 29 / Wednesday

Vol.345  
**우리는  
현대건설  
이다**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 주소 서울시 중로구 을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 신고번호 종로 라00049

〈사보신문〉에서는 테마로 대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우리는 현대건설이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현대건설의 이름으로 완성해온 자랑스러운 역작을 통해 도전 DNA를 일깨우고 강인한 추진력으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름으로 내일을 건설하다

‘현대(HYUNDAI)’라는 사명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가 설립되면서부터다. 1947년 5월 ‘현대토건사’라는 현판이 처음 달린 곳 역시 서울 초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공업사 공장의 한 편이었다. 창립부터 현대자동차그룹과 궤를 같이 한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1968), ‘포니종합자동차공장’으로 명명된 현대자동차 증설공사(1974) 등을 담당하며 자동차 국산화 시대를 여는 데 일조했다. 2011년 4월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일원으로 합류하며 시너지는 더욱 커졌다. 그룹사로 편입한 직후 현대제철 제3기 고교 건설에 착수한 현대건설은 ‘숫물에서 자동차까지’로 불리는 거대한 자원순환형 사업구조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국내외에서 쌓아온 풍부한 시공 노하우와 첨단 기술을 발휘해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전을 담은 건축물 시공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관’을 비롯한 여수 세계박람회 대표 시설을 건립하며 세계 최초로 탄소 무배출 수소연료전지를 도입했던 시도나, 현대자동차 체험관의 미학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구조적 난제에 도전해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2017) 등 비정형 건축물을 완성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이 시공한 현대카드의 문화 라이브러리 시리즈와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 광주-KIA 챔피언스필드(2014)도 고객 친화형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로운 100년의 상징이자 초일류 기업 도약의 중심이 될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의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시민과 소통하며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건설될 것”이라는 그룹의 바람을 105층의 거대한 건축물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100년 대계를 향한 그 첫걸음에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조감도

## Hyundai E&C builds tomorrow with Hyundai Motor Group

“Hyundai” was first used as a company name in 1946 when Hyundai Auto Service was established. It was within the office of Hyundai Auto Service that a small sign reading Hyundai Togun, also known as Hyundai Civil Works Co., was put up in May 1947. Growing in line with Hyundai Motor Group, Hyundai E&C has joined forces to localize car production by building Ulsan Factory of Hyundai Motor Company in 1968 and upgrading its second factory in 1974. In April 2011, Hyundai E&C was incorporated into Hyundai Motor Group, which led to creating a stronger synergy.

Korea’s primary builder is coming to prominence in constructing structures which convey visions of Hyundai Motor Group. For example, the builder adopted carbon-free, emission-free hydrogen fuel cells, which is a world first, to build the Hyundai Motor Group Pavilion at Yeosu Expo.

Currently, the company is expecting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the Global Business Center of Hyundai Motor Group which will serve as a symbol of the coming centennial and a center for the country’s largest auto maker to take a leap toward a global leading company.



현대제철 제3기 고교 2013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2014



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 2015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2017



## KRW 2 trillion deal in Uzbekistan

Hyundai E&C and Posco Daewoo win power generation project

The consortium of Hyundai E&C and Posco Daewoo has signed an agreement to conduct a project valued at 1.8 billion dollars, or approximately two trillion won, to build a combined-cycle power plant in Uzbekistan.

The signing ceremony held at the Hotel Shilla in Seoul on November 22 was attended by the Uzbek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chairman of the State Committee for Investments Azim Ahmedkhadzayev and deputy chairman of UzbekEnergo Shukhrat Sheraliev, and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from Hyundai E&C and Posco Daewoo.

As part of the Uzbek government's initiative designed to construct large-scale combined-cycle power plants, the 450 MW combined-cycle power plant will be built in Navoiy, the center city of the chemical industry in Uzbekistan, to power up the central region of the country. The consortium of Hyundai E&C and Posco Daewoo will also cooperate to build a 220-550 kV transmission and transformation line with a length of 1,230 kilometers.

In March 2013, the consortium received the 870-million-dollar deal to construct a combined-cycle power



plant in Talimarjan in Uzbekistan from UzbekEnergo. Hyundai E&C was in charge of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on a turnkey basis and completed the construction in August this year.

## 현대건설·포스코대우... 우즈베크, 2조원 발전 사업 공동수행 체결

총 18억 달러 규모 복합화력발전 및 고압 송·변전 공사

우리 회사와 포스코대우 컨소시엄이 총 18억 달러(약 2조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복합화력발전 공동수행에 합의했다.

11월 22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 아흐멧하자예프 위원장과 국영 전력청 셰랄리예프 부청장을 비롯한 우즈베크 정부 인사들과 현대건설·포스

코대우컨소시엄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우리 회사와 포스코대우는 우즈베크 화학공업 중심 도시인 나보이 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450MW 규모 복합화력발전소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우즈베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복합화력발전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중부 지역의 전기 공급을 전담한다. 또한 총길이 1230km의 220~550kV 송·변전 공사도

추후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발전소는 2013년 3월에도 우즈베크 국영전력청으로부터 약 8억7000만 달러(약 9712억원) 규모의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EPC(설계·조달·시공) 및 턴키 방식으로 체결해 올해 8월 준공한 바 있다.

이 같은 수행능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즈베크 국영전력청은 추후 발주 예정

인 발전 및 송·변전 프로젝트에 협업의사를 수개월간 보여왔고, 이날 사업 공동수행합의서 체결로 이어졌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우즈베크 정부가 발주한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가 향후 중앙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전력난을 겪는 국가들의 발전 사업 진출에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그림사 뉴스

#### 현대엔지니어링, '글로벌 CSR'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현대엔지니어링이 11월 13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에서 글로벌CSR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현대엔지니어링 우즈베키스탄 지사는 일자리,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 현지 사회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우즈베키스탄 칸딩 가스처리시설' 건설현장에 채용 연계형 '용접기술센터'를 개소해 현재까지 5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료생들은 전원 현대엔지니어링 및 협력업체에 채용된 상태다.



#### 현대종합설계, 주거환경개선 봉사 실시

현대종합설계는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종로구 일대 저소득 가정의 방한비닐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현대종합설계 임직원이 2016년 한 해 동안 급여 결정을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2016년도 사랑나눔 기금' 운영 사업의 일부로 진행됐다.

현대종합설계 관계자는 "더 많은 이웃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대종합설계와 지역사회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반기 경영진 안전리더십 교육 실시

우리 회사가 11월 24일 계동 본사에서 2017년 하반기 경영진 안전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정수현 사장을 비롯한 본사 재직 임원 및 팀장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코엔스연수원 송인규 원장의 안전의식 강연과 함께 재난영화 <Deep Water Horizon> 감상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 회사 정수현 사장은 총평에서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안전관리를 체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 문제는 기업 경영의 근간을 흔드는 핵심적 리스크(Risk)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회사는 경영진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5년부터 안전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본사 임원과 협력사 임원이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IT 신기술을 활용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실시간 통제하는 등 현장안전관리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 2017 신입사원 타임캡슐 봉인식

우리 회사가 2017년 신입사원들의 꿈과 비전을 담은 타임캡슐 봉인식을 가졌다. 2017년 신입사원 61명은 11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서산에 위치한 서산농장 연수원에서 입사 1년을 마무리하는 '목표수립 및 실행력 제고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에서 신입사원들은 입사 초기 진행된 입문 교육과 수련대회에서의 열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각자 명확한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목표 다짐서'를 작성해 타임캡슐에 봉인했다. 이날 봉인된 타임캡슐에는 목표다짐서 외에도 팀별 사진, 명함 등이 함께 보관됐으며, 타임캡슐 표지석에는 '선배들이 이룩한 70년을 이어 받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봉인된 타임캡슐은 2017년 신입사원이 7년 차가 되는 2023년에 오픈될 예정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6년 후 타임캡슐이 개봉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신입사원 모두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품질·환경·에너지·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심사 완료

우리 회사가 로이드인증원(LRQA Korea)으로부터 품질·환경·에너지·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를 무난히 완료하며 글로벌 선도기업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우리 회사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국내 42개 부서 및 현장을 대상으로 ISO 9001(품질), ISO 14001(환경), ISO 50001(에너지), OHSAS 18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인증심사를 수행했다. 10일 열린 종결회의에서 인증 심사팀은 우리 회사의 품질·환경·에너지·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올해 규격 전환심사를 통과한 ISO 9001:2015와 ISO 14001:2015 규격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건설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콜센터품질지수 아파트 부문 3년 연속 1위

힐스테이트가 최근 사단법인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7 KS-CQI(Korean Standard-Contact Service Quality Index) 콜센터품질지수' 조사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3년 연속 아파트 부문 1위에 올랐다.

'콜센터품질지수'는 콜센터 서비스 품질 수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과학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협회와 한국서비스 경영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콜센터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이다. 올해는 40개 업종의 147개 기업과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 평가와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현대건설 고객센터는 2007년 건설업계 최초로 '고객센터 대표전화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일관성 있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문의(분양·계약·공사·하자보수·민원 등)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화된 전문 상담인력을 두고 체계적인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부서·현장 소식

#### 은평성모병원 상량식 개최

은평성모병원 현장이 11월 21일 상량식을 갖고 12개월간의 주요 골조공사를 마무리했다. 현장 내에서 열린 이날 상량식에는 우리 회사 건축사업본부장 김정철 부사장,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손희종 주교, 김우영 은평구청장을 비롯해 발주처 관계자 및 정관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초청인사 소개 ▶참석인사 축하연설 ▶축복예절 ▶상량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16년 11월에 착공한 현장은 은평구 진관동 93-6 일대에 연면적 17만 9404㎡,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의 종합 의료시설 1개동과 8층 규모의 부속시설 1개동을 시공하는 프로젝트다.



#### 해외법무팀, 'ALB 코리아 어워즈'서 올해 최고의 팀에 선정

법무실 해외법무팀이 11월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법조 분야 시상식 'ALB 코리아 어워즈 2017'에서 '우수 기업법무팀 경쟁' 부문 '건설 및 중공업 분야 올해 최고의 팀'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5회째 시행되는 'ALB 코리아 어워즈'는 법조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 미디어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의 계열사 ALB(Asian Legal Business)가 주최한다. 올해는 법학대학, 사내 변호사, 로펌, 법률협회 등으로 구성된 30여 명의 심사위원단이 총 34개 부문에 오른 후보들을 평가했다.

법무실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적 분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클레임 전문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현대건설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The Jeju Tourist Shuttle Bus offers a chance to visit hard-to-reach attractions

Nov 22

JEJU - Traveling without a rental car on Jeju has long been considered a luxury only for those with an abundance of time. Most buses didn't cover the whole island, skipping parts of Mount Halla and the more secluded forests, and the ones that did take you to the smaller towns far away from Jeju International Airport did not run very frequently.

However, that has changed after Jeju reformed its bus system and launched a new travel bus that takes people into the center of the island's nature preserves for a fair price. Yellow Jeju Tourist Shuttle Buses 810 and 820 take passengers to major travel destinations around Jeju. The 810 bus covers the eastern part of the island - home to many parks and oreum, or parasitic cones formed by volcanic material on the island - while the 820 covers the western side of the island, known for its museums and amusement parks. Each of the buses run in two directions, so travelers can easily access wherever they are going. The buses cost 1,150 won (\$1.05) for adults, 850 won for students and teenagers and 350 won for children. There are no transfers.

There is a tour guide on board to assist travelers. They inform passengers where the bus is going and offer detailed information on where to go visit and how to best



1 Daecheon Transit Center 2 Jeju World National Heritage Center, Geomun Oreum 3 Seonheul 2-ri Village 4 Fairy and the Woodcutter 5 Seonin-dong Village 6 Daheeyeon 7 Albam Oreum 8 Camellia Hill Wetlands Center 9 Hanul Land 10 Eodae Oreum 11 Deokcheon-ri 12 Dunji Oreum 13 Maze Land 14 Bijarim 15 Darangshi Oreum Entrance (North) 16 Jeju Rail Bike 17 Yongnuni Oreum 18 Darangshi Oreum Entrance (South), Sonji Oreum 19 Songdang-ri Village 20 Abu Oreum 21 Geoseunsemi, Andol, Batdol and Min Oreum

enjoy the museums, oreums and parks that are accessible from the bus stops.

While most bus stops on the route around the island's east side are close to most of the major destinations like Yongnuni Oreum, the Darangshi Oreum, one of the highest parasitic volcanos on Jeju, is an exception. From the bus stop, it takes about 30 minutes to walk to the entrance. After another 30-minute hike up to the top, you will be able to see a spectacular

view of the ocean on one side and a range of oreum on the other. On a clear day, hikers can get a view of the Seongsan Sunrise Peak as well. From there, make your way over to Yongnuni Oreum, a 30- to 40-minute walk. An easier climb than the hike up to Darangshi, this trail starts on a horse farm, where some horses are known to eagerly follow hikers as they walk by. Be sure to check the bus schedule in advance so that you don't need to wait too

long at the stop.

The bus runs 16 times a day from 8:30 a.m. until its last run at 5:30 p.m. The location of the buses can be tracked on bus.jeju.go.kr as well as on mobile apps that show bus routes. The bus route takes about one hour and 20 minutes from start to finish.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Jeju Tourist Shuttle Bus and general travel tips on Jeju, go to [www.visitjeju.net](http://www.visitjeju.net).

By KOREA JOONGANG DAILY

## Korean abstract art hits Hong Kong auctions

Nov 23

A new light was shed on Korean abstract art from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world-famous dansaekhwa movement at local and foreign auction houses' sales on the last week of November in Hong Kong, market insiders said. The London-based auction house Christie's presented two paintings by Rhee Seundja (1918-2009), a rare female Korean

first-generation abstract artist who was active in Paris. Seoul Auction, Korea's leading auction house, also presented abstract paintings by artists in the generations before and after dansaekhwa among its total of 100 pieces at its Hong Kong sale on Nov. 26. "The percentage of dansaekhwa pieces among the total works [on offer at] recent sales has been steady at 30 to 40 percent," explained Son Ji-

sung, head of the public relations team of Seoul Auction. "So, for this Hong Kong sale, we presented Kim Whanki's 1964 abstract painting and works by three 'next-generation' abstract painters born in 1950s - Lee InHyeon, Kim TaekSang and Jang SeungTaik," she added.

By KOREA JOONGANG DAILY "Untitled" by Nam June Paik "Morning Star" by Kim Whanki



### Group News

#### Victory in Australia

On a dramatic and exciting final day of Rally Australia, our Belgian crew of Thierry and Nicolas registered our fourth victory of the season. Our crews totalled an impressive 14 stage wins in Australia, the most for our team in a single event. It was the culmination of a competitive year in which we have taken victories on three different continents, on gravel and tarmac, and with versatile performances from our Hyundai i20 Coupe WRC. Although the 2017 season is over, thoughts already turn to the 2018 FIA World Rally Champion-



ship, which will get underway with Rallye Monte-Carlo on January 25-28. The season will be formally launched at a special event during the Autosport International Show in Birmingham, UK on January 11.

#### Kia renovates healthcare center in Uganda

Kia Motors Corporation has formally handed over a healthcare center in the town of Mayuge in eastern Uganda, having funded the build of the facility and its day-to-day management during a start-up phase. The center, which provides medical support in the region, has been renovated and furnished with new medical equipment as part of Kia's 'Green Light Project' initiative, 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rogram which aids social mobility and self-sufficiency. The handover ceremony was attended by local dignitaries and Kia



executives. Kia's Green Light Project which started in 2012 strives to improve access to healthcare, education and employment for disadvantaged communities in Africa, in particular by helping to establish much-needed facilities.

### 10 minute Korean Lessons

Basic



Please get a good rest tonight  
 오늘은 꼭 쉬세요

#### Situational context

Su-mi looks tired today from all her work in the office. Michael is concerned and wants to tell her to take a rest at the end of the day. At this point, he can say "오늘은 꼭 쉬세요."

#### Today's dialogue

마이클 수미씨, 오늘은 꼭 쉬세요.  
 Su-mi ssi, oneureun puk swiswyo.  
 수미 네, 그래야겠어요.  
 ne, geuraeyagesseoyo.  
 Michael Su-mi, please get a good rest tonight.  
 Su-mi Yes, I think I will.

#### One more expression

꼭 means 'well', such as in "꼭 잤어요." (I slept well,) or "꼭 쉬고 싶어요." (I want to take a good rest.) However, it also can mean 'deeply' like in the phrase "고개를 꼭 숙였다." (I bowed my head deeply.)

Intermediate



I will call you after I consider the matter  
 생각 좀 해 보고 연락 드릴게요

#### Situational context

Michael is on the phone with a car dealer from a car dealership. The dealer asks him to decide quickly, but Michael wants to say he needs some time to think about it. At this point, he can say "생각 좀 해 보고 연락 드릴게요."

#### Today's dialogue

자동차 판매원 그 차가 마음에 드시면 이번 주까지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gue chaga ma-eume deusimyeon ibeon jukkajineun gyeolljeonghasyeoya hamnida.  
 마이클 글썬요, 생각 좀 해 보고 연락 드릴게요.  
 geulsseoyo, saenggak jom hae bogo yeollak deurilkkeyo.  
 Dealer If you like this car, you have to decide this week whether or not you will buy it.  
 Michael Well, I will call you after I consider the matter.

#### One more expression

"연락 드릴게요." (I will call you.) is a way to say good-bye when you want to meet again. You can also use "또 연락 드릴게요." (I will contact you again,) or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I will call you later.)

Please scan the QR code for more Korean language learning resources.  
 Source: 세종 누리 학당(Nuri-King Sejong Institute) [www.sejonghakdang.org](http://www.sejonghakdang.org)





뉴욕, 파리, 싱가포르, 서울... 마천루가 즐비한 세계적 도시들이 최근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있다. 바로 지하공간이다. 주차장 등 보조적 수단으로만 이용되던 지하공간에 햇빛이 드는 것은 물론, 각종 생활 공간과 녹지 공간까지 조성되고 있다. 바벨탑을 쌓듯 끊임없이 위로 향하던 건축가들의 관심이 지하로 쏠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글=김재성 <문명과 지하공간> 저자 / 사진 제공=정림건축·Wikimedia Commons·애플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5  
2017/11/29/Wednesday

## 미래 도시의 청사진, 지하공간 건축



1, 2 우리나라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프로젝트 조감도, 파리 국립도서관 등 지하공간 건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했다. 'Light Walk'라는 콘셉트를 내세워 태양광이 지하까지 들어온다. 3 지난 10월 아이폰X를 발표한 애플 신사옥 내 스티브 잡스 극장. 통유리 외벽에 지하 4층 규모로 지어졌다.

### 도시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지하공간

늘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업, 애플의 신 사옥이 올해 완공됐다. 우주선을 보는 듯한 사옥 건물과 더불어 눈길을 끈 시설이 바로 스티브잡스 극장이다. 이 극장은 지상이 아닌 지하 4개 층에 걸쳐 지어졌다. 사옥도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상에 녹지와 호수 등을 조성했다. 이처럼 지하공간과 지상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건축 사례는 최근 세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이 지하공간으로 눈을 돌리게 된 큰 이유는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해서다. 지하공간이 교통·주차·보행 등 현대 도시 과밀화의 해결책이 되는 점은 두말할 필요 없다. 게다가 지하 공간은 기후 변화가 적고 온도가 비교적 일정해 습거나 더운 날씨에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하의 흙이나 암반은 소음 차단 기능이 뛰어나 단단한 보호벽 역할을 한다. 정적이고 아늑한 지하공간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주거 공간, 공연장, 경기장, 도서관, 연구소 등 다양한 시설이 지하에 배치되고 있다.

### 공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을 지하로 끌어들이다

프랑스 파리의 상업지구인 라데팡스나 레알 지역은 지하공간 개발의 선구적

사례다. 겨울 기온이 영하 30도를 밑도는 캐나다 몬트리올에는 지하 도시 레조(RESO)가 들어섰다. 마찬가지로 혹은 을 견뎌야 하는 북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지하공간 건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의 전차 운행이 중단된 후 방치됐던 윌리엄스버그 지하 전차 터미널은 초록이 무성한 공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로라인(Low line) 프로젝트는 햇빛을 고밀도로 집광, 전달해 지하에서도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는 원격 채광 기술을 활용한다. 지하 공원뿐 아니라 콘서트나 이벤트가 열리는 복합문화 공간으로도 사용될 예정인데, 현재는 식물 식재가 가능한지 시험하는 로라인 랩을 운영 중이다.

그동안 지하 건축은 부족한 지상공간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활용됐다. 주차장, 보일러실, 물류창고 등 보조적 기능이나 소음시절 격리 목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하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건축물과 생활 공간이 지하에 들어서는 것이다. 패러다임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규모의 대형화다. 레조는 여의도보다 면적이 더 크다. 350만 명의 몬트리올 인구 중 매일 5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레조는 천장을 통한 자연 채광으로 지하 건축 공간이라는 답답함을 떨었다. 최근 서울시는 몬트리올을 모델로 시청과 인

접한 12개 지하철 역사를 하나로 묶는 지하공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국내의 '영동대로 지하 공간 통합개발'은 우리나라 지하 건축의 전범이 되지 않을까 싶다. 건축 규모는 지하 6층, 깊이 51m로 건축 면적이 16만㎡에 달한다. 기본적인 구상은 지상을 생태 공간으로 바꾸고 지하를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해 도시 철도 2호선, 9호선, GTX A-line, B-line, C-line, 위례경전철, 버스환승센터를 연계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국제설계공모에 당선된 정림건축 컨소시엄의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는 'Light Walk'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유리를 활용해 지상의 빛이 지하까지 들어오게 하는 아이디어를 선보인 것이다. 전체를 조망하며 조형미를 느낄 만한 외부가 없는 지하 건축에서는 내부 구조의 공간 계획이 중시된다. 내부와 외부의 자연스러운 소통, 자연광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다. 지하 건축의 거장 도미니크 페로는 'Light Walk'로 빛과 색을 활용한 미적 감각을 보여줄 예정이다.

### 안정성 및 공사 비용 꼼꼼히 살필 것

다양한 이점으로 볼 때 지하 건축 공간은 앞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하공간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 도시 과밀화의 대안, 지하공간 공원, 연구소, 도서관 등... 지하공간의 패러다임이 변하다

과제도 적지 않다. 앞으로 지하공간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건축가의 고민은 무엇일까.

단순하게 말하면 지상 건축은 구조물의 내적 안정과 지반의 지지능력만 확보하면 된다. 콘크리트나 철강 등 사용 재료도 모두 탄성체여서 설계의 불확실성도 거의 없다. 그러나 지하 건축은 사정이 다르다. 지반은 구조상 변수가 많고 인접 지하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들어서는 공간 규모에 비해 불연속면이나 단층 등의 암반 결합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성파나 초음파 탐사 등 다양한 기법이 동원되지만 비용과 조사 시간의 부담은 늘 설계자의 발목을 잡는다. 화강암이나 편마암 등이 많은 우리나라 암반은 워낙 단단해서 파내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암반 강도가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강한 암반은 지하공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유리한 조건이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를 보면 지상 건축비는 100만원/㎡, 지하주차장은 70만원/㎡ 정도다. 그러나 동등한 가치로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지하 건축비용은 지상에 비해 20%정도 늘어난다. 규모와 작업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하공간 1㎡를 위해 파내는 암반은 대략 6㎡ 정도다. 굴착과 반출, 흙막이 등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 조명이나 생활용수 등 유지관리를 고려한 생애주기 비용도 만만치 않다. 날로 발전하는 굴착기법이나 조

명기술로 볼 때 부담이 점차 줄 것이라는 점이 다행이다.

### 제도적 보완 및 인식 개선이라는 숙제 해결해야

지하공간 건축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도 더욱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 건축법은 조문(條文)이 많고 개정도 잦지만 지하 건축과 관련한 조항은 찾기가 어렵다. 지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시설기준 ▶환기·채광·습기·방사선 등 건강과 관련되는 사항 ▶지하수 오염과 수위저하에 따른 주변 생태 환경 관리 ▶모호한 표현으로 분쟁이 잦은 지하공간 보상 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하공간이라는 고정관념과 사용자들의 심리적 부담도 고려돼야 한다. 지하 환경이 개선돼도 사용자는 여전히 불안함과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측면 또는 천장 개방 ▶공간의 높낮이 비율 고려 ▶작은 개울이나 수목을 이용한 생태 환경 조성 ▶자연광 확보를 위한 햇빛 추적장치(Sun scoop) ▶일광수직구(Sun shaft) 등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고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오랜 세월 무의식에 잠재된 지하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한편 아늑한 지하공간의 장점을 부각시키다 보면 지하 건축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다.



4 거대한 지하 도시를 형성한 캐나다 몬트리올의 레조(RESO). ©Daderot, CC0 5 원격 채광 기술로 식물을 기르는 미국 뉴욕의 로라인 랩. ©Jcbergland, CC BY-SA 4.0 6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는 입체적 교통체계를 지하화한 사례다. ©Clayton Parker, CC BY 2.0



우리 회사는 CSR 활동에서도 글로벌 건설 리더라는 위상을 떨치고 있다. 2017년에도 국내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해외에서 사랑의 손길을 건넸다. 특히 건설사 최초로 사회공헌에 기술교류를 접목한 CSR 활동도 선보였다. 한해 동안 펼친 우리 회사의 CSR 활동을 총 정리한다. 글=김보나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5  
2017/11/29/Wednesday



1 마을 벽화 작업을 실시한 꿈키움 멘토링 4기 봉사단. 2 필리핀 코르도바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3 H-Contech는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태양광 랜턴을 제작하는 과학교육 봉사를 실시했다. 4 창덕궁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에서 화단을 가꾼 참가자들. 5 베트남에 문을 연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제2 캠퍼스의 완공식.

## 2017 사회공헌 활동 결산 4816명이 만들어낸 3만여 시간, 세상에 따스함을 더하다

6 개국  
해외 CSR  
지원 사업

우즈베키스탄·필리핀·미얀마·스리랑카·이란·인도네시아 등 2017년 지원국

44 명

기술교류형 해외봉사단  
H-Contech 출범

10명의 직원과 34명의 대학생 봉사단을  
더한 총 참여 인원

96 명

베트남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제2 캠퍼스 완공

제1기 플랜트배관 과정(18개월)  
교육생 수

1880 시간

꿈키움 멘토링 3기 수료 및  
4기 발족

학습멘토링(1600시간) 및  
진로멘토링(280시간) 시간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다. 청소년의 장래 희망에 따라 해당 분야 전공 대학생과 임직원을 선발한 후 총 20개 조를 구성했다. 3기 봉사단 대학생 및 직원 멘토는 한 달에 1~4회씩 멘티와 만나 야구 관람 문화 체험과 제주도 여행, 진로 활동, 학습지도 등을 실시했다. 멘티들이 장래 희망으로 삼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 토목 엔지니어,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술사 등 전문가들을 섭외해 멘티들에게 생생한 현업의 이야기도 전했다. 4기 꿈키움 멘토링 단원들은 지난 9월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창수 차장 건축기획실

다양한 연령대의 멘토와 멘티가 모여 오랜 기간 합을 맞춰야 했기에 처음에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쉽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 현장을 방문한 멘티들이 눈을 반짝이며 품질팀장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만났던 멘토링 프로그램은 제 삶에도 큰 활력소가 됐습니다. 녀석들이 보고 싶네요! 멘티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현장이 진출한 해외 국가를 중심으로 현재 17개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로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주거시설 또는 학교를 건립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3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키브라이 IT교실 완공 ▶6월 필리핀 코르도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랜턴 전달 ▶6월 미얀마 탈린타운십 초등학교 건립 완공 ▶11월 이란 테헤란 고등학교 IT교실 완공 ▶11월 인도네시아 사물라 IPON 해비타트 완공(주거 및 위생시설 신축) 등이다. 필리핀 코르도바에 전달한 태양광 랜턴은 2017년도 신입사원들이 직접 제작했다. 미얀마 탈린타운십은 우리 회사의 초등학교 건립으로 지역 내 어린이 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이란 테헤란에도 학생들이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 스크린 등으로 전문적인 IT 교육을 받을 수 있는 IT교실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우리 회사 임직원 10명과 대학생 봉사자 34명 등으로 구성된 건설사 최초의 기술 교류 해외봉사단 'H-Contech'가 출범했다. H-Contech는 현대건설의 'H'와 'Construction' 'Technology'의 앞 글자를 따 만들어진 이름이다. 기존의 해외 지원 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지 건설 관계자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활동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1기 H-Contech 봉사단은 먼저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사물라 지역을 찾아 학교 화장실과 놀이터 등 생활 시설물을 신축 및 보수했다. 또한 마을 아이들에게 직접 과학 교육을 실시해 아이들은 물론 현지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8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에서 세미나를 비롯한 기술교류 활동을 펼쳤다. H-Contech는 현재 2기 준비 중이며 내년 여름에 파견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제2 캠퍼스 완공식이 열렸다. 현대-코이카 드림센터는 코이카(KOICA), 플랜코리아, 현지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술을 개발도상국 청년들에게 교육하는 직업기술학교다. 2013년 가나에 처음 세워진 드림센터는 이번 베트남 제2 캠퍼스 완공으로 총 네 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제2 캠퍼스는 현대자동차그룹사 중 우리 회사가 독자적으로 완공해 플랜트배관 및 용접 과정을 신설·운영 중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완공식에는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이석홍 본부장과 베트남 건설부 차관, 하노이 건설전문대학 총장 등 현지 인사들도 참석해 현대-코이카 드림센터에 향한 현지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청년봉사단 해피무브 18기가 베트남 봉사활동을 마치고 완공식에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굿네이버스 김기쁨 대리**  
미얀마 탈린타운십 초등학교 건립 사업담당  
2450가구가 사는 탈린타운십 아이들은 그동안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임시 대나무 막사에서 공부해 왔습니다. 3층 규모의 학교 건물을 세우고 현재까지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출석률이 90%로 향상되는 등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기반을 마련해 준 현대건설에 감사 전하며, 앞으로도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최중혁 차장 사업지원실**  
현지 건물 보수 공사 및 교육 봉사 시 주민과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느라 매일 새벽까지 돌관 작업(?)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열심히 활동한 덕분에 봉사가 끝날 무렵에는 온 마을에 한국 동요와 '현대건설 사랑해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술교류 활동에서는 인도네시아어로 현지의 우리 회사 작품을 설명했습니다. 현지인과 한국 대학생 단원들 모두에게 현대건설을 알릴 수 있어 무척 뿌듯했습니다.

**강나경 대리 기술교육원**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베트남 제2 캠퍼스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위해 플랜트배관 심화 과정을 개발하고, 현지 건설전문대학 교수진 2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수들이 모두 너무나 열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이론과 실습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용접 과정 교수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회사와 교수진의 시너지로 베트남에 훌륭한 건설 인재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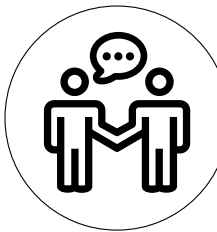
그 외 활동

※2017년 11월 현재

활동명	기간 및 횟수	참여 직원 및 성과
해피무브 18기	1회(1~2월)	직원 2명 및 대학생 83명 참여
설·추석 배식 봉사	2회	62명 참여, 독거어르신 약 1000명 대상
사랑나눔 도시락	2회(동계, 하계)	121명 참여, 총 2222시간
사랑나눔기금	12회	약 3억 3000만원(11월 22일 현재)
현열 캠페인	5회	566명 참여
창덕궁 문화재 지킴이	8회	365명 참여
사랑의 제방 봉사	8회	213명 참여, 방 3200여 개 제작
식료품 지원 및 말벗 봉사	6회	123명 참여

6 꿈키움 멘토링 3기는 토목 엔지니어 등 전문가를 섭외해 꿈키움 멘티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7 해외 CSR 지원 사업으로 미얀마 탈린타운십에 건립한 초등학교.





## 아름다운 이야기 공모전

홍보실에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한 달여간 협력사와의 훈훈한 상생협력 사례를 소재로 한 'Go Together 아름다운 동행 스토리 공모전'을 진행했다. 지난날에 이어 2회째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7건의 사연이 접수돼 현대건설과 협력사 임직원의 엄청난 심사를 받았다. 총 6688표의 공감을 얻은 수상작에는 '작은 배려가 때로는 큰 힘이 되고, 솔직하게 전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었다. 정리=이영주 / 사진=이슬기

# Hyundai E&C story: Be together, be happy! 함께여서 행복한 현대건설 희망 스토리



**축구공이 쓰아 올린 현장의 단합**  
이병창 과장 현대건설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현장  
LeeByung-chang Hyundai E&C

On September 26, 2014, Vietnam fought against UAE during men's round of 16 football match of the 2014 Asian Games at Hwaseong Sports Complex in Korea. A group of Vietnamese cheering squad in red gathered at the venue, and they were Vietnamese workers working for the Incheon Port International Ferry Terminal II project. Even though Korea hosted the Asian Games which the Vietnamese workers had a craze for, and their national football team advanced

to the round of 16, they could not go to watch the match because they were working shifts around the clock. As the match date approached, their morale went down, which deteriorated work efficiency and increased a risk of construction accidents. To deal with this, our construction site made a big decision in an emergency meeting with our subcontractor, Gwanak Construction & Equipment Service Co., to buy tickets for the match,

rent a bus and provide snacks, beverages, placards and even uniforms, so that all 160 workers from Vietnam could watch the match. After the game, they were impressed by consideration of Hyundai E&C, and the story was reported in a Vietnamese local newspaper. It was a valuable experience for me to realize that win-win cooperation begins from interest and consideration for workers.



2014년 9월 26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축구경기장. 베트남과 UAE의 아시아게임 16강전이 열리는 경기장에 붉은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베트남 응원단이 모여들었다. 바로 우리 현장인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현장에서 케이스를 제작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이다. 우리 현장은 9000t급 케이스를 한 달에 4함씩 24시간 교대 근무로 쉴 틈 없이 제작하고 있었다. 슬림 폼으로 연속 작업을 진행하는 공정이기에 중간에 작업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공

교롭게 제작 기간 중 베트남 근로자들이 열광하는 아시아게임이 개최됐고,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16강까지 올라가는 선전을 펼친 것이다. 경기 날짜가 다가올수록 응원하러 갈 수 없는 근로자들은 사기가 떨어졌다. 늘릴 지라도 안중에 마무릴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회사의 배려에 감동했고, 분위기 쇄신으로 짧은 시간에 케이스 제작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한 감동을 전하며 베트남 현지 신문에까지 보도됐다. '상생협력'은 가장 한 것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작은 관심,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까만콩 부장과 귀콩 대리**  
권여울 대리 대화조정  
Kwon Yeo-ul Daewha Landscape Co.

I was working at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assenger Terminal II project of Hyundai E&C. I spent most of time in working in a container alone due to the type of work I was in charge of. One day, my mobile phone turned off without reasons and never turned back on. I was embarrassed as I relied solely on my mobile phone while working. I recovered myself and ran to Hyundai E&C's container. Unfortunately,

there was no one from the landscaping team I worked with. That moment, "What's wrong?" asked a man I have never seen before. I told him the situation, and he let me use his phone. Thanks to his help, I could do my job as planned. Later I came to know that he was team manager of the Quality Control Team. Since that day, I tried to exchange greetings with him. We sometimes had snacks and made conversation

together. He knew how to change the serious working atmosphere into a softer one, which was attributed to flexible attitudes based on his years of experience. After that, I tried to think and act more positively, worked in a more relaxed and comfortable way and could improve my work efficiency. Taking this chance,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for his kind words which were a great comfort to me.

저는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발주처 특성상 부가적인 서류 업무로 늦은 시간까지 홀로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여유 없는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더니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이던 컨테이너는 유선전화를 연결하기 어려워 개인 휴대전화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다잡고 현대건설 컨테이너로 달려 배려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있던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처음 보는 분이 상황을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가까이 본인 자리의 전화기를 내주셨고, 덕분에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아무렇지 않게 도움을 주신 분이 품질팀 부장님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식사를 하며 인상 좋으신 분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더니 오빠가 누굴 닮았는지 못했는데 이 글을 통해 덕분에 큰 위안을 얻었다고, 참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겠다"며 웃었습니다. 이후 저는 까만콩 부장님께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부장님께서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곤 했습니다. 때론 주전부리를 공유하거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건강을 돌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작업을 하면서 작업 효율 또한 향상했습니다. 본사로 복귀하며 까만콩 부장님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 글을 통해 덕분에 큰 위안을 얻었다고, 참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현대건설에서 배운 3가지 신뢰**  
박성규 과장 경동건설  
Park Sung-kyu K D E&C

I was responsible for safety management at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Wonju-Gangneung double-track rail project. I would like to take this chance to share my beneficial experience with Hyundai E&C. At that time, KDE&C filed for court receivership as its construction site in Israel suffered liquidity difficulties due to the client's notification to terminate the project deal. Instead of requesting for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with KDE&C out of con-

cern over possible disruptions, Hyundai E&C placed strong confidence in our construction capability and visions and further supported us in continuing to work. Thanks to the trust, our company could complete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gram in 10 months after the receivership order, which could not be achieved without win-win cooperation based on mutual trust between Hyundai E&C and its subcontractor. On top of this, Hyundai E&C always

put emphasis on safety, conducted thorough inspections and took appropriate actions. Working with the safety-centered company, I could feel proud that we achieved zero accidents. At last, I was captivated by the site inspection system of Hyundai E&C. The system focused on providing prevention training courses and finding solutions, which led to reducing rework and precluding problems from occurring.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든든한 상생협력 고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무사고 현장'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훌륭한 소장님의 진두지휘 아래 현대건설은 '안전'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을 때의 일입니다. 공사 차질 등을 우려해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현대건설은 저희 경동건설의 시공능력과 비전 때문에는 짜증도 나고, 일이 들기게 했을 때도 도와줬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회사는 법정관리 10개월 만에 기업회생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든든한 상생협력 고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무사고 현장'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훌륭한 소장님의 진두지휘 아래 현대건설은 '안전'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을 때의 일입니다. 공사 차질 등을 우려해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현대건설은 저희 경동건설의 시공능력과 비전 때문에는 짜증도 나고, 일이 들기게 했을 때도 도와줬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회사는 법정관리 10개월 만에 기업회생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든든한 상생협력 고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무사고 현장'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훌륭한 소장님의 진두지휘 아래 현대건설은 '안전'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을 때의 일입니다. 공사 차질 등을 우려해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현대건설은 저희 경동건설의 시공능력과 비전 때문에는 짜증도 나고, 일이 들기게 했을 때도 도와줬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회사는 법정관리 10개월 만에 기업회생종결



**사랑하는 김준호 과장에게**  
안재홍 부장대우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현장

내가 근무한 오송 생명과학단지 현장 특수시설팀이 많아 준공 이후에도 설계변경이 계속돼 야근이 일상인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동고동락하던 직원들이 많이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자동제어 협력사 김준호 과장이 가장 그림다. 특수연구실현팀의 핵심은 자동제어였다. 실별 차압을 정확히 조절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였지만 준공일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

마저 돌관공사로 진행해야 했다. 김준호 과장은 자동제어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다. 하지만 그런 그가 만사가 잔뜩 묻은 작업복으로 현장에서 손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일하는 것은 좋은데, 설계변경 서류는 어찌라고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약속한 날짜 전에는 제출할게요." 약속한 날짜에 설계변경 서류는 완

성돼 있었다. 그는 무려 5개월 동안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설계변경을 초인적으로 수행했다. 힘든 현장이었지만 수고의 대가로 있었다. 설계변경에 따른 원가절감의 수감으로 이어진 P-BOND 발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차례의 전화통화와 현지 조율 끝에 간신히 발권이 됐으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기성금 수령까지 지연했습니다. 투입된 자금보다 월등히



**GO TOGETHER!! 이제는 정말 함께 갑니다!**  
최명환 차장 우성건설

지나달 현대건설의 싱가포르 세실 스트리트 오피스 현장 직원 분과 함께 해서 나갔던 일을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싱가포르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던 중 계약보증서, 영문으로 표기하자면 P-BOND 발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차례의 전화통화와 현지 조율 끝에 간신히 발권이 됐으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기성금 수령까지 지연했습니다. 투입된 자금보다 월등히

작은 물량의 시공밖에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당사가 수령할 수 있는 수령금액은 현재까지 적었습니다. 그때 현대건설 담당 분이 제안해준 '협력업체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큰 희망이 됐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여러 절차가 필요했으나, 세실 스트리트 오피스 현장의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의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 회사

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현대건설의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며 자금지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팝업 창을 본 적이 있었으나,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심코 지나쳤던 지원 프로그램이 힘든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우성건설 역시 현대건설과 'GO TOGETHER'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시공하겠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일하는 우리 현장**  
임재일 사원 / 싱가포르 소각로 공사 현장

싱가포르 남서쪽에 위치한 인공섬 주룽, 이곳에 자리 잡은 싱가포르 소각로 건설현장은 우리 회사와 협력사 모두가 밤과 사투를 벌이는 곳입니다. 우리 현장은 수시로 변하는 현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보일러 1호기 화인(Firing)에 성공했습니다. 반드시 해내고 싶었다는 현장 직원의 의지가 가장 컸지만, 그 뒤를 든든하게 지켜준 협력사의 공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

리 현장은 이후 또 한번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발주처에서 반입해온 쓰레기 질이 너무 나빠서 때문입니다. 고철로 만들어진 폐배관이 발견되는가 하면, 심지어 폐자전기도 나옵니다. 설상가상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도 다량 반입돼 수분 과다로 운영에 무리가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생겼습니다. 제대로 소각되지 않은 쓰레기로 인해 현장 직원과 협력사 직원 모두 또다

시 힘을 모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갈퀴와 삽을 이용해 불연소된 쓰레기를 제거해 현재는 기계가 무사히 작동 중입니다. 현장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생하는 협력사의 노고에 늘 감사하고 있으며,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동료로 함께해 주는 협력사와 아름다운 상생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INTERVIEW 테에란로 237 개발사업 현장과 (주)신원이엔지개발의 상생토크

### 해체와 건설의 공존, 상생의 힘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가장 많은 수기를 응모한 곳에 주어지는 'Go Together 상'을 수상한 협력사는 건축 구조를 해체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신원이엔지개발이었다. 고국진 대표부터 입사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는 설기영 신입사원까지 고른 참여를 보여준 신원이엔지개발은 현재 우리 회사의 테에란로 237 개발사업에 참여 중이다. (사보신문)은 테에란로 237 현장을 찾아 현대건설과 신원이엔지개발의 상생스토리를 들어왔다.



고성균 부장대우(현대건설 공무팀장)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신원이엔지개발은 우리 회사와 인연이 각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도약의 상징이 될 GBC 프로젝트부터 부천 성모병원, 평촌 오피스텔까지 우리 현장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수기 공모전 참여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고국진 대표(신원이엔지개발) 해체라 하면 건축 공정의 한 부분인데도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주먹구구식 업무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고요. 하지만 현대건설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에 참여

하면서 저희의 경험과 기술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 기쁩니다. 함께 일하며 기 업정신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 솔직한 감사를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고국진 대표(신원이엔지개발) 테에란로 237 현장은 르네상스호텔을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로, 구조물 위로 500t의 크레인을 올려 해체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철저한 보강공사가 진행돼야 했고, 도심 공사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먼지 등 환경 영향을 고려한 까다로운 공정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무사히 지상층 철거를 마치고 지하층에 돌입했는데, 지하는 철거와 시공이 동

시에 이뤄지는 책서포트 공법이 적용 중입니다.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현대 건설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데, 현장은 물론 본사 구조팀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 전문가에게 기술 자문을 해도 100% 신뢰할 수 없거든요. 그때마다 현대건설 구조팀이 시공성을 감안한 해결 방안을 주시곤 했습니다. 박노진 차장(현대건설 공사팀장) 신원의 강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철거 업체들이 공학적인 접근보다 경험적 수행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원은 작은 문제 제기에도 구조적인 해법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합니다. 저희야말로 그런 신원이엔지개발이 고마울 뿐

입니다. 제가 알기로 책서포트 공법이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건 저희 현장이 국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준 덕분에 어려운 과정을 문제없게 진행 중인 거고요. 방극정 차장(현대건설 안전팀장) 안전 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신원은 GBC 프로젝트 때도 무재해로 한전 사 옥을 철거했어요. 도심공사는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안전은 최근 사회적 이슈도 큰 분야라 저희는 시공사의 중점 관리가 오히려 반갑습니다. 권부필 과장(신원이엔지개발) 저는 현대건설의 빠른 일처리에도 감사하고

동시에 일어나고, 공정이 늘어나며 여러 협력사가 함께 작업을 해야 하죠. 하지만 신원이라면 남은 공사로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정남욱 안전이사(신원이엔지개발) 안전은 늘 조심해도 과함이 없는 분야입니다. 현대건설의 안전시스템을 준수하고 협업한 결과로 무재해 타이틀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이 위치한 인주로는 인도와 도로가 인접해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은 최근 사회적 이슈도 큰 분야라 저희는 시공사의 중점 관리가 오히려 반갑습니다. 권부필 과장(신원이엔지개발) 저는 현대건설의 빠른 일처리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현대건설과 많은 일을 했는데요. 시공사의 결제를 못 받아서 일정에 차질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국진 대표(신원이엔지개발) 저희는 현재 국내 15개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사를 수행하며 시공사와의 최고의 상생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가 신뢰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도 자랑이지만, 안정적인 경영과 기술 향상으로 시공사가 우리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는 500개 이상의 협력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가운데서 '역시 신원이엔지

개발이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고성균 부장대우(현대건설 공무팀장) 건축물들의 노후화로 잘 짓는 일 못지않게 잘 파고 하는 일도 중요해졌죠. 이 때문에 신원이엔지 개발은 앞으로 더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신원이엔지 개발과 상생협력을 통해 테에란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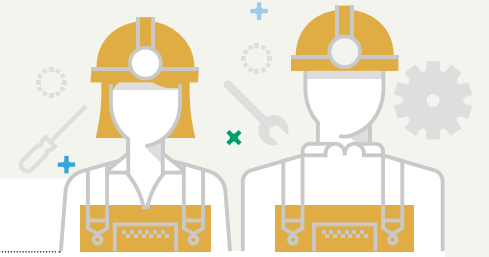


왼쪽부터 권부필 대리, 정남욱 이사, 박노진 차장, 고국진 대표, 고성균 부장, 김태원 소장, 설기영 사원, 방극정 차장



2017 사보신문 임직원 설문조사

# 올해 HYUNDAI E&C TODAY와 통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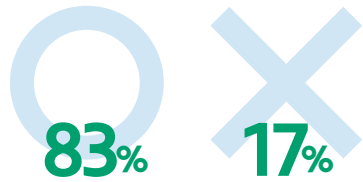
## Reply, 한국인 직원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는 독자인 사우들을 위해 존재한다. “올해 사보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한국인 직원 응답자의 대다수(83%)가 “읽었다”고 응답했다. 이 중 64%는 온라인(H-Letter, 그룹웨어 PDF, 회사 홈페이지)으로 사보를 읽었다고 답해 온라인 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종이신문보다 높은 추세였다. “스마트폰용 ‘사보신문 앱’을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2.2%가 “그렇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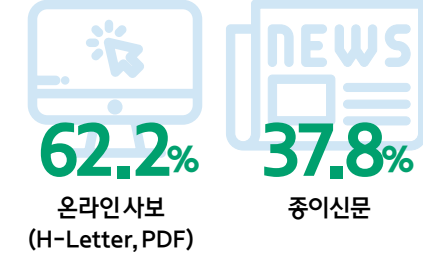
(HYUNDAI E&C TODAY)는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사보’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사보신문은 1면과 6·7면을 연계해 현장 기사를 강화하고, 2면 등에 회사 관련 콘텐츠를 확충했다. 그 결과 특집으로 게재되는 현장취재 기사 선호도(32%)가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사내·외 소식 및 뉴스에 대한 호감도도 지난해 23.7%에서 56.3%로 대폭 상승했다.

또한, 올해 홍보실은 H-Letter와 현대건설 사보신문 페이스북 등 온라인 소통 채널들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톡톡 튀는 메일 제목, 기획이 돋보이는 콘텐츠 등을 보강한 덕분일까. 지난해보다 H-Letter와 사보신문 페이스북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다소 많아졌다. H-Letter에서 호응이 좋은 콘텐츠는 사보신문이었으며, 페이스북에서는 역작 시리즈, 카드뉴스 등 사보를 활용한 콘텐츠와 현 건인의 스케치북(동영상), 이주의 문화 책갈피 등이 인기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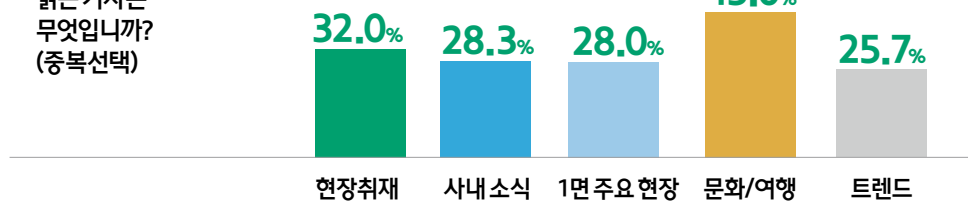
Q 올해 사보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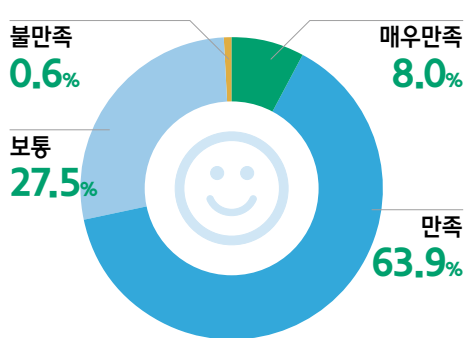
Q 어떤 경로를 통해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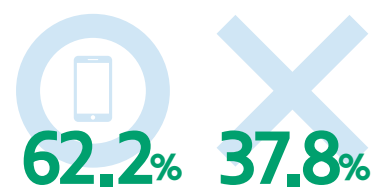
Q 올해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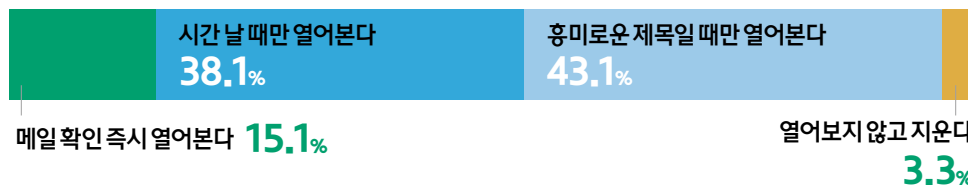
Q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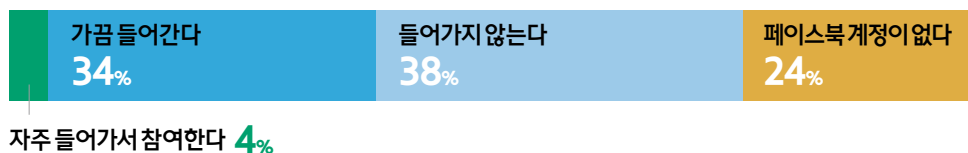
Q 스마트폰용 ‘사보신문 앱’을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Q H-Letter를 얼마나 관심 있게 읽고 계십니까?



Q 올해 사보신문 페이스북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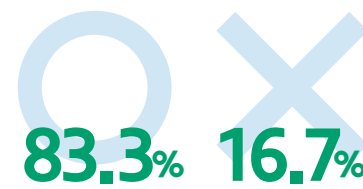


## Reply, 외국인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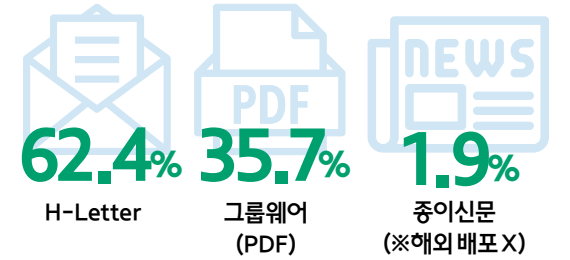
올해 홍보실은 외국인 직원 소속감 증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영문으로 제작한 외국인 직원 전용 H-Letter를 발행해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사보신문에 영문 콘텐츠와 설문 이벤트(Tune in 2 U) 등을 확충했다. 그 결과 사보신문 열독률이 지난해 54%에서 83%로 경종 뛰었다.

“Tune in 2 U”와 임직원 이벤트에 참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외국인 직원 응답자 중 86.5%가 “그렇다”고 답해 쌍방향 소통 콘텐츠에 대한 외국인 직원들의 높은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 직원들이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국·영문이 함께 나오는 1면(주요 현장)과 영문 페이지인 3면(글로벌)이었으며, 보강했으면 하는 콘텐츠는 외국인 직원 이벤트, 회사 뉴스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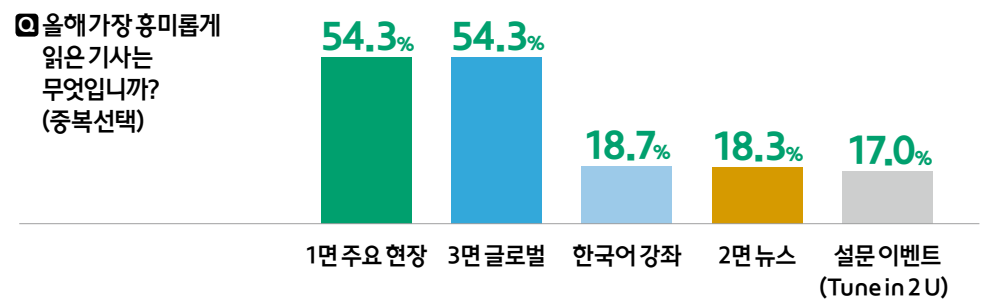
Q 올해 사보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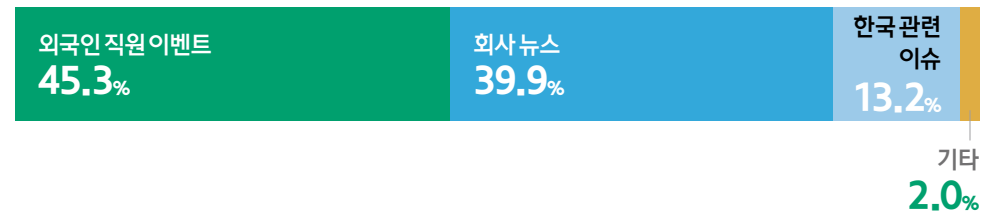
Q 어떤 경로를 통해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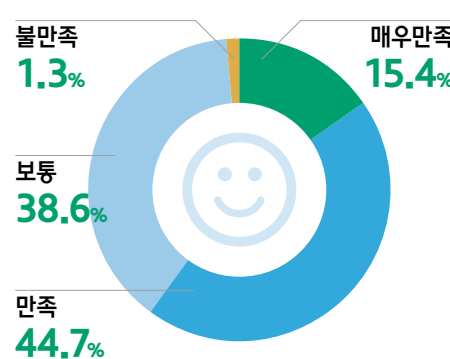
Q 올해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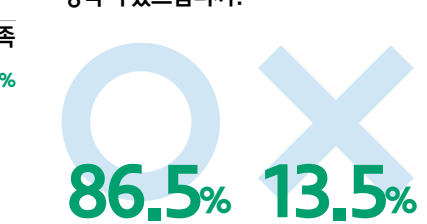
Q 보강했으면 하는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Q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Q ‘Tune in 2 U’와 임직원 이벤트에 참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Be Together, HYUNDAI E&C TODAY

현대건설 사보신문 (HYUNDAI E&C TODAY)는 매년 콘텐츠와 디자인을 리뉴얼해 왔다. 그 덕분인지 사보신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인(71.9%)·외국인(60.1%) 직원 모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한국인·외국인 직원들은 여러 면에서 통했다. 모두 온라인 사보를 더 선호했으며, 현장 취재 등 회사 관련 기사를 더 면밀히 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2001년 9월 창간 이래 사우들의 열린 소통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HYUNDAI E&C TODAY). 홍보실은 애정 어린 의견이 담긴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 더욱 알찬 콘텐츠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사우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다.



# 노인을 위한 주거는 있다

얼마 전 동해안 근처 바다가 보이는 곳에 상가주택 의뢰를 받았다. 아래층은 임대 공간, 위는 주거. 일반적으로 주거와 소득을 함께 할 수 있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성 방식이다. 서핑과 다 이빙을 즐긴다는 40대 후반의 건축주는 바다를 바라보며 집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던 중 나이가 더 들면 병원 근처에 집을 지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당장 살 집을 짓기도 전에 이후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좀 뜻밖이긴 했지만, 십수 년 뒤에는 살아가는데 또 다른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는 걸 느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일반적인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풍요로운 경제, 문화, 의료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아온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측면에서 주거 공간을 이해하는 게 아닐까 싶었다. 거칠게 말해 집이란 평생을 살아 뼈를 묻는 개인적인 공간이라기보다 서비스 공간 중 하나이며, 집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를 묻는 데 관심을 둔다고 할까. 주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임대 중심 주거 트렌드로의 변화와 맞닿는 부분이 있다.

이런 트렌드에 관해서라면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도 턱없이 올라버린 주택가격으로 인한 소유 욕구 감소, 실질 거주 수요 증가, 대출시장 규제 강화, 임대용 주택 부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인해 21세기 초반 한국 사회에 소유보다는 공유를 통한 임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

이 있다. 사실 이런 기사를 접하고도 식지 않는 아파트 분양 시장의 열기를 보면 본격적인 임대의 시대가 과연 온 걸까 하는 의문은 들지만, 임대 모델 중 하나인 ‘에어비앤비’의 성공을 보면 분명 주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 셰어하우스의 등장

우리나라에서 공유 임대 주거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

는 셰어하우스(Share House)다. 올해 <청춘시대2>라는 드라마의 배경으로도 등장한 셰어하우스는 한 가구 안에 여러 명의 거주인이 방을 1~3인실로 사용하고 그 외에 화장실·부엌·거실 등의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공간이다. 물론 공유 주거에는 육아가 필요한 가정들같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서로 채워 가며 만드는 코하우징(Co-Housing) 개념도 있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인 경향이 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에 비



## 우리나라 공유 임대 주거의 변화 젊은 층이 이끌어... 노년층 특성 파악한 공유 공간 속속 등장

해 단기 주거가 가능하고 특별히 입주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셰어하우스는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모델이다. 실제로 셰어하우스에 대한 젊은 층의 호감도가 꽤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이전에 비하면 공간을 공유해 발생하는 불편함보다 주거비용의 절감, 공동체 구성을 통한 경험의 공유 등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 셰어 하우스 시장은 지난 3년간 두 배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해 대기업의 시장 진

출, 여성 전용 공간의 등장, 관리 전용 회사의 등장으로 셰어하우스도 브랜드화되는 중이다.

## 노년층을 위한 공유공간 필요해

이런 분화로 예상되는 분야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셰어하우스다.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10년이 지나기 전 노년층에 접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부모 세대보다 더 활동적이고, 사회 참여에 관심이 높으며 자식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은퇴 전과 같

이 문화·여가에 대한 소비를 지속시키고 싶은 욕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선행돼 하는데, 알다시피 대한민국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의 집을 처분하고 저렴한 비용의 소규모 독립 공간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이들을 위한 대안 주거의 필요성이 나온다. 이전 같으면 그저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 되지 싶지만, 이들은 수영장이 딸린 고급 실버타운의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감당할 만한 의료, 관리, 커뮤니티 서비스가 제공되며 동시에 독립적인 개인 공간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개인 공간 이외의 것은 집단으로 공유해 주거 규모를 줄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절감분을 개인의 서비스를 위해 지출해 삶의 균형을 맞추는 공유 주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노년층 특성을 파악한 공유 공간의 창출,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뒤따른다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이들에게 튼튼한 버팀목 하나가 생기게 될 것이다.



차현호

건축가

※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똑똑한 회사생활 Tip

### 나의 '업무역량' 지수는?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해를 생각하게 되는 요즘, 2018년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업무에 대해서도 셀프 진단을 내려보자.

- 메일함에 안 읽은 메일이 항상 10개 이상 있다
- 지각을 일주일에 1번 이상 꾸준히 한다
- 매번 상사로부터 보고서 작성에 대해 주의를 받는다
- 무언가에 기한에 압박해서 실행한다
- 자료, 첨부·프린트 누락, 숫자 오타 등 '1일 1잔실수'를 한다
- 회의 때마다 중요한 메시지를 놓친다
- 동료들과 비슷한 업무량이지만 항상 나만 야근한다
- 자료를 읽지 않고 회의에 참석할 때가 많다
- 일을 미루거나 느리게 한다. ('To do list'에 사라지지 않는 일이 있다)
- 일이 항상 용두사미로 끝난다

### 7~10개 기본기를 탄탄하게!

잔실수는 일의 성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늘 실수가 많은 사람'으로 찍히면 중요한 프로젝트나 큰 업무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빠른 일처리보다는 기본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자. 업무 마감 지키는 것은 특히 필수다.

### 4~6개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완성도 높은 업무 처리 능력이 필요할 때다. 바쁜 건 한데 해놓은 일은 없고 '유사 노동' 같은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지 주의하자. 우선순위를 매겨 '편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자기계발에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1~3개 자기계발까지 하면 금상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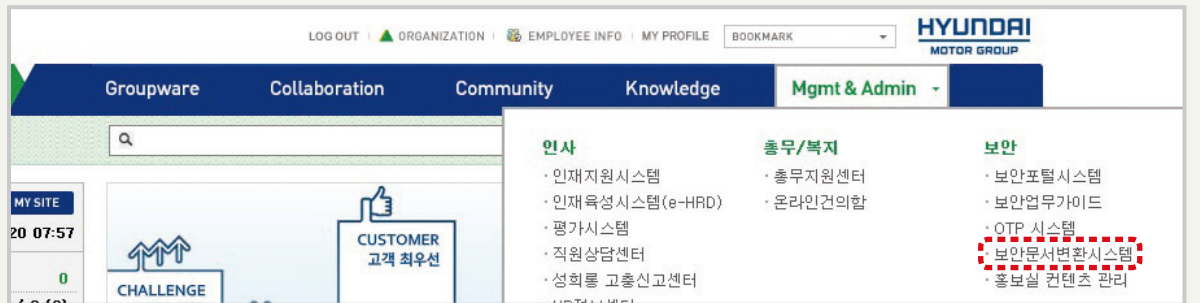
위에서 시키는 업무가 아닌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주체적으로 행동할 때다.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의 스타트라인이 돼 보길! 이제는 팀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보자.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개발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금상첨화!

참고서적=김무구 저, 『최고들의 일머리 법칙』

## 그룹웨어 돋보기

### 문서 파일이 깨진다면 보안문서변환시스템이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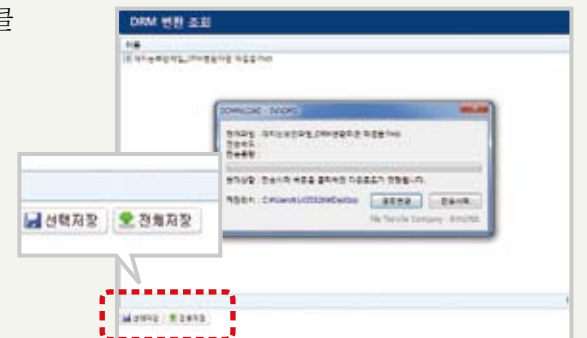
지나해 11월 우리 회사 보안문서 프로그램이 바뀌었다. 당시 관련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보안문서 복호화' 작업을 해도 간혹 오래 전에 저장해둔 문서를 열어보면 알 수 없는 기호만 뜨는 경우가 있다. 보안문서변환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준다.



**Step 1 접속하기** 그룹웨어 상단 메뉴에서 'Mgmt&Admin'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인사] [총무/복지] [보안] 이라는 세 가지 메뉴가 나온다. 그중 [보안] 아래의 '보안문서변환시스템'을 클릭하면 새 창이 뜬다.

### Step 2 변환하기

'DRM 변환'이라는 새 창이 뜨면 왼쪽 하단의 찾기 버튼을 통해 파일을 추가하거나 깨지는 파일을 끌어다 놓는다(드래그 앤 드롭). 그런 다음 변환 버튼을 누르면 끝!



**Step 3 변환 성공** 변환한 파일을 저장한 다음 저장한 파일을 열어보면 '#\$@?%!%'라는 알 수 없는 기호만 가득했던 문서가 제대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소비에는 '그레이트'을, 현명하지 못한 소비에는 '스튜핏'을 날리는 경쾌하고 화끈한 입담으로 데뷔 26년 만에 화려한 전성기를 맞은 김생민. 그가 인기 있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글=노진호 <중앙일보> 기자/사진=권혁재 사진전문 기자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5  
2017/11/29/Wednesday

## 김생민의 스투핏, 탕진잼을 눌렀다

### 김생민이 주목 받는 이유

26년 차 개그맨 김생민(44)은 여태껏 대중들에게 KBS <연예가중계> 리포터, 혹은 재테크 전문가로 불렸다. 예능이나 개그 프로그램 출연 없이 21년째 <연예가중계> 리포터를 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했다. 하지만 요즘 팟캐스트에서 김생민은 누구보다 '핫'한 웃음꾼이다. 그는 청취자들이 보내온 영수증을 보고 경제 조언을 해주는 <김생민의 영수증>에서 입담을 선보이며 '스튜핏(Stupid)', '알라잇(I love it)' 같은 유행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여름엔 데뷔 26년 만에 포털 팬카페가 개설됐다.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생민은 "우리 연배는 SBS <미운 우리 새끼> 같은 예능에 나와야지 그래도 땀구나 하는데 주위에서 화제가 됐다고 하니 까 어안이 병병하다"며 "선배 송은이와 김숙이 '누구 탓하지 말고 스스로 우리 무대를 만들어보자'며 3년 전 시작했던 팟캐스트 '비밀보장'에서 경제 자문을 하라고 해서 한 게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50분 방송하는데 1시간 정도만 녹화한다"며 "대본도 없이 청취자들이 보내준 영수증만 1시간가량 공부하고 녹화에 들어가는데 이런 방송은 살다 살다 처음 봤다"고 했다.

1992년 KBS 특채로 개그맨이 된 그는 성실함 하나만큼은 2등이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평이 나 있다. KBS <연예가중계>, MBC <출발 비디오 여행>, SBS <동물농장> 등 지상파 대표 장수 프로그램에 각각 21년, 20년, 17년씩 출연할 수 있었던 것도, 굵직한 수입 없이 10년 동안 10억원을 모으며 재테크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것도 이 성실함 덕분이었다.

김생민은 "운 좋게 데뷔는 했는데 무대 울렁증이 심했다. 93년 KBS <한바탕 웃음으로>의 봉숭아학당 코너에 톨 톨이 스머프 학생으로 출연했는데 6개월 동안 다 편집 당했다"고 말했다. 그

리면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끼고 모으다 보니 어느새 재테크 전문가로 불리더라"고 말했다. <김생민의 영수증>에서 그는 껌과 사탕을 산 청취자의 영수증을 보고는 "껌은 친구가 하나 줄 때, 사탕은 음식점에서 나올 때 먹는 음식"이라거나 커피 영수증을 보고서는 "우리 다 같이 커피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며 사소한 것에 정색해 웃음을 자아낸다. 김생민은 "어릴 때 집이 가난해 검소함이 체질이 됐다"며 "얼마를 넣든 기간에 92년부터 자동이체 적금을 단 한 달도 빼 먹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작정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는 "돈을 평생 모아도 집 하나 마련하기 쉽지 않은 청춘들에게 나는 함부로 조언할 수 없다"며 "영수증"에서는 재미를 위해 자극적으로 아끼라고 말하는데 이를 좋아해주시니 그저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김생민은 "지난 25년간 너무 주눅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TV 방송 쪽으로는 자신이 없었다"며 "50이 다 돼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는데 도전보다는 그저 누군가를 웃길 수 있다는 사실에 신이 나는 요즘이다"고 말했다.

### 소비 피로중, 김생민을 소환하다

왜 하필 지금 김생민일까. 그의 '짤테크'도 이미 10여년 전부터 알려진 사실인데 말이다. 지난해 말부터 주목받는 트렌드는 '올로(You Only Live Once·한 번뿐인 인생)'였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는 대신 당장 오늘의 삶과 행복에 충실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올로는 기업과 미디어 등에 의해 소비 중심의 문화로 비쳐졌다. 올



### 김생민 어록

“지금 저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

“비를 맞는 것은 문학적이다”

“커피는 선배가 사줄 때 먹는 것이다”

“손은 장갑, 발은 드레스에 가려서 안보이니 칠하지 마라”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 대신 점프하라”

“투어버스나 일반버스나 창밖 풍경은 똑같다”

“아이가 될 사달라고 하면 탄소리로 주의를 분산시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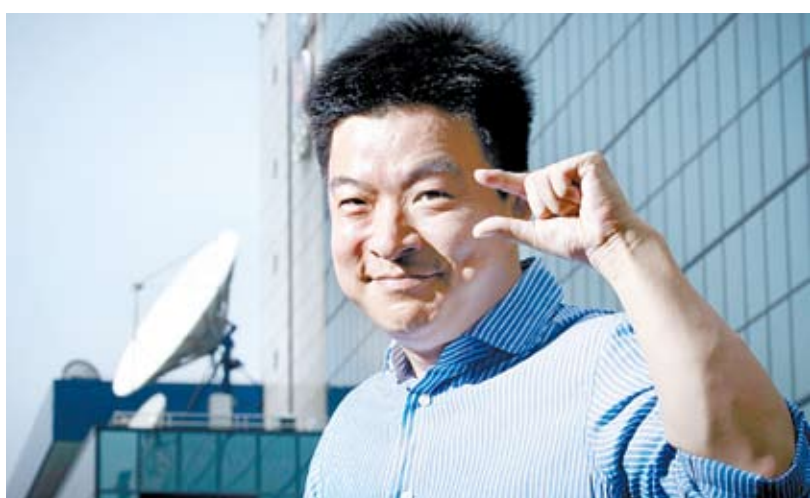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할수록 과소비는 근절된다”

“디자이너즈 닛 임플먼트”

135683500696

THANK YOU!

잘한 소비에는 '수퍼 그레이트' 외쳐 아끼며 살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손에 잡히는 절약 얘기로 공감대



팟캐스트에서 시작해 11월 26일부터 KBS에 정규 편성된 <김생민의 영수증>. [KBS 김생민의 영수증 캡처]

상반기 올로와 함께 주목받았던 신조어 '시발비용(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쓰는 비용)'과 '탕진잼(과소비하는 에서 오는 재미)'이었던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생민이 외치는 '스튜핏'은 소비 행위로만 올로를 행하라는 변질된 올로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는 분석이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김생민은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하면 몇 년 후에는 이 정도 모을 수 있다'고 손에 잡히게끔 얘기해준다"며 "탕진잼과 올로를 외치면서도 한편으로 '정말 이래도 될까' 하던 불안감을 해소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생민에게 자신의 삶을 투영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도 적지 않다. 한 훈이라도 아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다른 연예인과 달리 짜질해 보이기까지하는 김생민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한다는 얘기다. 지난 7월 만난 김생민은 실제 검소했다. "커피를 사겠다"는 기자 얘기에 반색하며 "진짜 사주시는 거냐"고 재차 묻고, 취재 차량을 유료 주차장에 댄다는 얘기에 "KBS 본관에 주차하면 무료인데 왜 그랬느냐"고 수차례 얘기하며 자기 일인 양 안타까워했다. 휴대전화도 폴더폰은 아니었지만 중고로 싸게

산 스마트폰이었다.

김생민 신드롬은 앞으로도 계속될까. 김생민은 "오늘을 위해 쓸 건 쓰면서도 미래를 위해 꾸준히 돈을 아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트렌드가 바뀌어도 중요한 건 언제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하재근 평론가는 "미래가 불안할수록 결국 손에 쥘 게 있어야 안심이 된다"며 "아끼며 살아가는 행위의 중요성이 지금처럼 공유되는 한 김생민 신드롬 또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끼며 살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김생민은 대리자"라는 것이다.



대중문화는 당대의 변화하는 문화들을 예민하게 포착한다. 그래서 그해에 이슈가 된 대중문화 현상을 들여다보면 한해의 문화 풍경을 그려낼 수 있다. 올해는 어떤 대중문화들이 화제가 됐고, 그것은 대중의 어떤 문화적 감수성이 반영된 것일까. 글=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사진제공=JTBC, tvN, SBS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5  
2017/11/29/Wednesday

# 올로부터 펫티켓까지 2017년 방송에 투영된 문화 총결산

여러모로 2017년 대중의 삶은 쉽지만은 않았다.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시대의 강령은 그래서 '나'의 삶을 우선적으로 하고(올로), 그 삶이 본질적인가(미니멀 라이프)를 묻게 만들었다. 힘겨운 삶이지만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함으로써 극복해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더 대중의 마음이 움직인 건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욕망이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가에 궁금증을 느끼고(타자 감수성), 함께 다 같이 잘사는 삶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젠트리피케이션, 펫티켓, 공유경제)를 질문했다. 어쩌면 이러한 트렌드들은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그 이상적인 삶을 우리에게 대중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했다는 걸 말해준다. 생존해야 하지만 또한 공존하지 않으면 그 생존이 어렵다는 걸 인식한 대중의 스마트한 선택들이 여러 문화 트렌드로 등장했던 해가 바로 2017년이다.

## '올로(YOLO)라이프' 열풍

나영석 사단이 만든 <삼시세끼>를 보며 "You Only Live Once!"를 외치며 등장한 이른바 '올로 라이프'를 일찍이 앞서갔다는 느낌을 받는다. 모두가 일을 해야 한다고 외칠 때 이 프로그램은 '떠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정반대의 욕망을 담았다. 그렇게 '한번뿐인 삶'을 떠올리며 현재의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삶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보이지 않던 별빛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빗소리가 들리며 나아가 생계의 밥이 아닌 행복한 밥 한 끼의 가치가 드러나더라는 것. 올해 초 화제가 됐던 <윤식당>도 마찬가지다. 발리의 한 섬에서 한식당을 여는 과정을 담은 이 프로그램은 '떠나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올로적 감성을 밑바닥에 깔아뒀다.

올해 특히 올로가 문화 트렌드로 등장했던 건 각자도생의 삶에서 혼자 사는 삶을 오히려 긍정화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다. '단 한번뿐인 인생'을 가치의 축으로 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다. 인생은 한번뿐이니 후회 없이 즐기며 사랑하며 배우자는 새로운 삶의 철학은 과거 공동체주의와 가족주의가 갖는 미래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뒤집어 현재지향적이고 행복지향적 가치관으로 바꿨다. 집단적 이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거나, 그 집단이 내세우던 미래의 성공을 위해 개인이 현재 누릴 행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 타자에 대한 감수성 요구하는 사회

외국인들의 방송 출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은 특히 화제가 됐다. 외국에 나가 외국인을 만나는 상황을 뒤집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여행하며 느끼는 감성을 전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별 감흥이 없던 일상을 새삼 발견



1 윤식당 시즌2(tvN).  
2 대화가 필요한 개냥(tvN).  
3 효리네 민박(JTBC).  
4 한끼줍쇼(JTBC).  
5 내 방 안내서(SBS).  
6 나의 외사친(JTBC)

하게 됐다. 무엇보다 독일·러시아·인도·핀란드 같은 저마다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이 공감하는 것을 보면서 이른바 '타자에 대한 감수성'을 깨우게 됐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가게 되면서 각자 살아가면서도 타인과 공존하기 위해 더더욱 필요해진 것이 타자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이다. 외국인을 다양성의 관점에서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으로 들여다봄으로써 그 관점 자체를 공감하는 것이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 쏟아져 나온 외국인 국내 여행기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건 이러한 타자 감수성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타자 감수성은 국적과 인종만이 아니라 성별, 세대, 지역 갈등 같은 우리네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적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

## 비용으로 얻는 행복 '미니멀 라이프'

올해 큰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으로 <효리네 민박>을 꼽을 수 있다. 최고의 스

타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이효리네 집에 일반인을 초대해 며칠씩 민박을 하는 콘셉트의 이 방송이 보여준 건 다름 아닌 '내려놓는 삶'이 가진 가치였다. 최고 스타가 보통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우러지는 모습만으로 채우기보다 비우는 것이 얼마나 삶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이효리는 자신의 일상을 통해 보여줬다. 물론 미니멀 라이프 역시 올로처럼 각자도생의 삶이 가져온 또 다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미니멀 라이프는 그저 물건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게 가짐으로써 삶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구매하고 소유하는 물건들은 그저 집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과 신경을 요구한다. 적게 소비하고 적게 소유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

'미니멀 라이프'는 더 이상 대량소비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를 긍정화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 젠트리피케이션과 골목길 문화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 마포구 연남동길, 망원동 망리단길- 도심을 중심으로 골목길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고 이런 경향은 골목길 문화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한때 아파트나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밀려 나가거나 사라졌던 골목길에 대한 향수가 만들어낸 이 새로운 문화로 인해 도시의 상권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동네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됐지만 본래 터전을 삼고 살던 원주민들이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외부 자본에 의해 동네는 활성화되지만 원주민은 떠나게 되는 현상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지칭했다. 이런 새로운 골목길 문화를 담아낸

프로그램이 <한끼줍쇼>다. 전국의 골목길을 찾아 다니며 낯선 집에서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도시화되면서 사라졌을 것이라 여겼던 이웃의 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골목길이 주는 따뜻한 정감과 어우러져 공간에 대한 새로운 욕망을 담아냈다. 1년 전 갔던 망원동 골목길을 찾은 <한끼줍쇼>는 활기를 띤 골목길에 대한 반가움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아쉬움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했다.

## 동물 소재 프로그램 흥수와 펫티켓

<동물의 세계>부터 <TV동물농장>까지 동물 소재의 프로그램들은 스테디셀러였지만 올해는 특히 동물과의 공존을 꿈꾸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왔다. <하하랜드> <개밥주는 남자> <대화가 필요한 개냥> 등 이렇게 많은 반려동물 프로그램이 등장한 건, 반려동물 가족 1000만 시대에 돌입한 우리네 사회의 달라진 풍경 때문이다. 동물 소재 프로그램들은 과거 관찰 차원에 머물렀던 동물을 이제는 마치 인간처럼 감정입해 바라보는 단계로까지 진화했다.

하지만 늘어난 반려동물 가족만큼 새롭게 요구되는 건 반려동물 문화와 펫티켓이다. 한때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켓맘 사건'이나 최근 벌어진 최시원 반려견에 의한 사망사건은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공존의 시대에 반려동물 역시 함께 공존해야 할 주제로 떠올랐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

## 집 바꿔 살아보기와 공유경제

특이한 문화 현상 중 하나는 공유경제 개념에 의해 탄생한 집 바꿔 살아보기 콘셉트의 프로그램들이다.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나 <나의 외사친>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과거의 콘셉트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타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 일상을 공유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주마간산이 될 수 있는 여행의 한계를 실제 살아가는 삶을 공유함으로써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다.

네트워크로 어디든 이어져 있는, 이른바 '초연결 사회'에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는 현재 소비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상징처럼 된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는 택시가 아닌 일반 차량을 스마트폰 앱 기반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교통중개 서비스이고, 일반 가정집을 연결해 중개해주는 에어비앤비(Airbnb)는 전 세계 숙박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초연결 사회의 공유경제는 소비자라 소비자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입주 고객을 위한 매거진 <HILLSTATE Promise>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내가 촬영한 힐스테이트 놀이터'를 주제로 사진 공모 이벤트를 진행했다. 힐스테이트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다양한 용모작 중 당선된 작품을 <사보신문>에서 공개한다. 정리=이희정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5  
2017/11/29/Wednesday

입주 고객 사진 공모 이벤트

# 내가 촬영한 힐스테이트 놀이터



“저희 아파트 놀이터는 놀러온 아이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저 역시 놀이터에 마련된 작은 통나무집을 즐겨 찾는데, 함께 분양받은 친구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 이정희 고객



“마치 장난감 마을 같지 않나요? 제가 살고 있는 힐스테이트 당진에는 이렇게 동화 속 나라 같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놀이터를 보고 눈을 빛내던 딸아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힐스테이트 당진 김진수 고객



“힐스테이트의 ‘막내’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영통에 드디어 입주했습니다. 키 크는 놀이터, 범선 모양 놀이터, 아기자기한 인형이 있는 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터가 있어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어 좋습니다. 단지 내 5개 놀이터 중 3개밖에 못가봤는데 내일은 나머지 두 개도 가봐야 할 것 같네요.” 힐스테이트 영통 윤중운 고객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여름 내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11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의 추억입니다.” 세종 11단지 더샵힐스테이트 구명진 고객



“산자락에 위치한 우리 아파트는 단지 내 나무들과 놀이터가 잘 가꾸어져 있어 새소리와 아이들 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죽전 새터마을 힐스테이트 이희광 고객



“문래동 현대홈시티에 어머니가 살고 계셔서 가끔 아이들과 찾아뵙는데, 놀이터 조경이 멋지더라고요. 나무들이 옛날 숲대처럼 세워진 특이한 구조의 놀이터입니다.” 문래동 현대홈시티 김재민 고객



“일곱 살 우리 예나가 제일 좋아하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놀이터입니다. 요즘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초등학교 언니, 오빠부터 아장아장 걷는 꼬마까지 우리 단지 놀이터는 아이들의 핫 플레이스랍니다.”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이유정 고객